

청소년 문제행동 진단을 위한 조사연구*

최 윤 진**
구 창 모
정 문 성

- I. 연구의 개요
- II. 연구의 결과
- III. 논 의
- IV. 제 언

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의 내용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제행동 경험 유형을 각 번인별로 조사하였다.
- 문제행동 인식에 관하여 심각성, 상황별 문제행동, 범죄와의 관계, 사회변화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 문제행동의 원인에 관하여 심리적 동기, 환경적 요인, 합리화 방식을 조사하였다.
- 문제행동의 지도에 관하여 성인의 지도방식과 청소년의 행동변화, 문제행동을 금지시키는 이유, 현행 학교처벌규정에 대한 견해,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문제행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한 지도를 하기 위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청소년,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문제행동과 관련된 의견들을 다각도로 파악하여 청소년 정

* 이 논문은 본원의 1990년도 공동연구사업인 “청소년 문제행동 진단을 위한 조사연구-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청소년, 학부모, 교사의 의식조사-”를 요약한 것이다.

** 공동연구자는 한국청소년연구원의 최윤진(책임연구원), 구창모(주임연구원), 정문성(연구원)임.

현행 학교처벌방식의 문제점, 청소년 건전육성의 대책을 조사하였다.

3. 연구의 방법과 절차

1)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민병근외(1978), 청소년 문제 연구조사 보고서(1982년), Hirschi(1969) 등의 연구를 기초로 하고 서울시내 20개교의 징계규정, 징계학생진술서, 선도회의록 등을 분석하여 가장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문제행동들을 수집하여 청소년 문제행동 검사 질문지를 작성한 다음 예비조사를 통하여 질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를 거쳐 수정 및 보완하였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흡연, 음주, 하급생 구타, 집단싸움, 본드흡입, 무단외박, 이성교제, 디스코장 출입, 전자오락실 출입, 음란물 보기, 과대치장, 무례한 행동, 노름 등의 13가지 문제행동을 추출하였다.

또한 질문지는 청소년용, 학부모용, 교사용으로 구분 작성하였으며, 질문지 구성은 성, 거주지, 학년, 학교계열, 생활수준, 문제행동 경험유무(이상 청소년용), 성, 거주지, 학력, 생활수준, 직업(이상 학부모용), 성, 근무학교계열, 근무지, 교직경력, 학생부(또는 교도부) 근무경력 유무(이상 교사용) 등의 배경변인과 문제행동의 경험, 인식, 원인, 지도방식 등에 관한 질문내용을 중심으로 하였다. 질문 문항은 청소년용 20문항, 학부모용 21문항, 교사용 21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내의 보기는 예상 응답내용을 가급적 종합적으로 포함시키되, 응답자로 하여금 혼란감이나 애매한 느낌을 주지 않고 본인의 견해를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예비조사를 통하여 4단계로 조정 제시

하였다.

2) 표본 및 표집절차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과 소속학교의 교사 그리고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였다.

조사대상의 표집은 학생의 경우, 지역크기, 성별, 학교계열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구비례에 따라 표본지점수를 선정한 후 각 지역별로 체계적 유층 집락 무선표집을 이용하여 5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1,500명, 교사 1,000명, 학부모 1,500명 등 총 4,0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실제로 회수되어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학생 1,437명, 교사 908명, 학부모 1,315명 등 총 3,660명이었다.

3) 조사절차 및 자료처리

질문지조사는 사전에 질문지에 관하여 교육을 받은 보조조사가원이 해당 조사지역을 방문하여 학교장이나 담당교사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였다. 한편 조사 기간은 1990년 5월 21일부터 6월 16일까지 약 4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사용한 통계분석 기법은 χ^2 검증, t 검증과 ONE WAY ANOVA였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대상은 고등학생만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모든 청소년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문제행동 유형은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임의로 선택된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II. 연구의 결과

1. 문제행동의 경험 유형

- 청소년이 가장 많이 경험한 문제행동은 전자 오락실 출입, 음주, 이성교제, 과대치장, 음란물 보기, 노름, 흡연, 무례한 행동, 무단 외박, 디스코장 출입, 하급생 구다, 집단싸움, 본드흡입의 순으로 나타났다.
- 배경변인별로 보면 남자는 노름, 음란물 보기 등이 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하는 문제행동이며 여자의 경우에는 무례한 행동, 과대치장 등이 남자에 비해 많이 경험하는 문제행동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높을수록 문제행동 경험 비율이 높았으나 노름, 전자오락실 출입, 음란물 보기, 흡연의 경우는 학년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도시의 청소년은 흡연, 전자오락실 출입, 음란물 보기, 노름에서 농촌의 청소년보다 높은 경험비율을 보였고 무단외박은 농촌의 청소년이 높은 경험을 나타내었다.

2. 문제행동에 대한 인식

1) 유형별 문제행동의 심각성

- 가장 심각한 문제행동은 흡연, 본드흡입, 음란물 보기, 음주 등으로 나타났다.
- 학부모가 교사나 청소년에 비해 문제행동에 대한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 배경변인별로는 대체로 여자가 남자보다, 도시의 응답자가 농촌의 응답자보다 문제행동에 대한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문제행동 유경험자는 무경험자보다 심각성의

지각이 낮게 나타났다.

2) 상황별 문제행동의 인식

- 문제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상습적이나 일회적이나의 문제, 문제행동으로 인한 결과, 문제행동의 동기, 환경적인 요소 그리고 문제행동의 정도문제 등이 문제행동을 보는 시각에 있어 다소간의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나타났다.
- 각 상황에 따른 문제행동의 허용여부에 관해서 대체적으로 청소년집단이 성인집단보다, 남성이 여성보다, 도시응답자가 농촌의 응답자보다, 청소년의 경우 고학년생이 저학년생보다, 학부모의 경우 고학력자가 저학력자보다 문제행동에 관한 허용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3) 문제행동과 범죄와의 관계

- 전체 응답자의 64.7%가 이들을 내버려 두면 대부분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응답하여 문제행동이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 집단별로는 학부모(72.7%)가 청소년(60.3%)과 교사(60.2%)보다 문제행동의 범죄화 가능성에 높은 응답을 하였다.
- 문제행동의 유경험 집단은 무경험 집단에 비해 문제행동의 범죄화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 배경변인별로 보면 청소년과 학부모는 남자보다 여자가 범죄화 가능성에 높은 응답을 보였고, 농촌의 청소년이 도시청소년보다, 실업계 청소년이 인문계 청소년보다, 문제행동 무경험자가 유경험자보다 범죄가능성에 높게 응답하였다.

4) 사회변화에 따른 문제행동의 인식

- 사회변화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문제행동은 9가지의 유형중에 이성교제(76.6%), 과대치장(34%), 음주(24.5%)의 순으로 나타났다.
- 집단별 반응을 비교해 보면 흡연과 본드흡입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청소년이 학부모나 교사에 비해 사회변화에 따라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 변인별로 보면 청소년과 학부모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허용적인 반응을 보였고, 거주지별로는 농촌의 청소년보다 도시의 청소년이 더 허용적이었다. 그 외에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계열, 학년, 문제행동 경험유무, 생활수준, 그리고 학부모는 학력, 직업, 생활수준변인이 사회변화와 문제행동과 관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실업계 청소년이 인문계 청소년보다,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문제행동 유경험자가 무경험자보다, 상층이 하층보다, 학부모는 학력과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허용적 태도를 보였다.

3. 문제행동의 원인

1) 문제행동의 심리적 동기

- 전체 응답자들은 문제행동의 심리적 동기에 대해 '일시적인 충동이나 호기심'(58.1%), '마음의 불안이나 긴장해소'(23%), '어른이나 사회에 대한 저항심'(11.1%), '어른들의 행동 모방'(7.8%)의 순으로 응답하여 정서적 불안정과 불안감 등이 중요한 심리적 동기로 나타났다.
- 원인별로 본다면, '일시적인 충동이나 호기'

심'에는 학부모가, '어른들의 사회에 대한 저항심'에는 청소년이, '어른들의 행동 모방'에는 교사가, 그리고 '마음의 불안이나 긴장해소'에는 청소년과 교사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비중을 두고 있었다.

- 변인별 분석에서는 청소년의 경우 남자청소년은 '일시적인 충동이나 호기심'에, 여자청소년은 '어른이나 사회에 대한 저항심'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었으며, 교사의 경우 '일시적인 충동이나 호기심'은 농촌의 교사들이 도시의 교사들 보다 더 높은 비중을 두었으며, 반면에 '마음의 불안이나 긴장해소'는 도시의 교사들이 농촌의 교사보다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

2) 문제행동의 환경적 요인

- 전체 응답자들은 청소년이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환경적 원인에 대해 '퇴폐적인 성인문화'(35.4%), '임시위주의 획일적, 경쟁적 학교교육'(30.8%), '가정이 화목하지 못해서'(19.2%), '친구나 선배의 영향'(14.7%)의 순으로 응답하여 환경적 원인으로 사회환경과 학교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 집단별로 보면 청소년은 '임시위주의 획일적, 경쟁적 학교교육'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하였고 부모와 교사는 '퇴폐적인 성인문화'를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응답하여 청소년은 학교환경을, 성인은 사회환경을 가장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 각 원인별로 보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해서'와 '친구나 선배의 영향'은 부모가, '임시위주의 획일적, 경쟁적 학교교육'은 청소년이, '퇴폐적인 성인문화'는 교사가 각각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반응을 보였다.

- 배경변인별 분석에서는 ‘가정이 화목하지 못해서’에는 세 집단 모두 여자가 남자에 비해 높은 반응을 보여 가정환경을 중시하였고, ‘친구나 선배의 영향 때문에’는 세 집단 모두 남자가 높은 반응을 보여, 남자는 동료집단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교제일별로 보면 실험계 청소년은 ‘퇴폐적인 성인문화’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인데 반해, 인문계 청소년은 ‘입시위주의 획일적, 경쟁적 교육’에 실험계 청소년보다 높게 응답하여 인문계 고등학교의 특성이 반영되었다. 생활수준별로는 하층 청소년이 ‘퇴폐적인 성인문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응답하였으나 상층 청소년은 ‘입시위주의 획일적, 경쟁적 학교교육’을 가장 큰 원인으로 응답하였다.
- 문제행동 무경험자와 유경험자의 반응을 비교해보면 ‘퇴폐적인 성인문화’에는 무경험자가 높은 반응을 보인 반면, ‘친구나 선배의 영향’에 있어서는 유경험자가 무경험자에 비해서 높은 반응을 보여 실제로 문제행동을 경험한 유경험자들은 동료집단을 문제행동의 중요한 환경적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3) 문제행동의 합리화 방식

- 문제행동을 한 청소년의 합리화방식은 ‘주위의 환경 탓이지 내 탓이 아니다(35.3%)’, ‘친구들과의 관계가 중요함으로 어쩔 수 없다(27.8%)’,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괜찮다(19.0%)’, ‘그 정도의 행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잘못이다(18.0%)’의 순으로 응답하여 ‘책임의 부정과 충성심의 의리’가 중요한 합리화 방식으로 나타났다.
- 집단별로 보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괜찮다’라는 문항에 청소년(22.3%)이 학부모

(18.3%)나 교사(19%)보다 더 높게 반응함으로써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더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배경변인별로 보면 남자 청소년(26.8%)은 여자 청소년(21.6%)보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므로 어쩔 수 없다’에 더 높게 반응함으로써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동료집단을 더 중시여기고 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문제행동 무경험자들은 ‘주위의 환경 탓이지 내 탓이 아니다’ 즉, 책임의 부정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합리화 방식인 것으로 응답했으나 실제로 문제행동을 한 유경험자는 4가지 합리화 방식을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그 정도의 행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잘못이다’에 있어서는 무경험자에 비해 높은 반응을 보였다.

4. 문제행동의 지도

1) 성인의 지도방식과 청소년의 행동변화

- 학부모와 교사가 가지고 있는 지도방식에 대한 생각과 실제 지도방식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었으며 학부모와 교사는 실제 문제행동을 지도할 경우 야단치는 것 보다는 조용히 타이르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이 보는 성인들의 지도방식은 성인들의 반응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성인들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해서 주로 ‘조용히 타이른다’(학부모; 40.6%, 교사; 63.0%)고 하였으나 청소년은 자신들의 문제행동에 대해서 성인들이 조용히 타이르는 방식(8.4%)보다 주로 혼을 내며 야단치는 방식(39%)를 취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청소년은 성인의 지도에 대해 ‘적당히 잘못했다고 한다’에 30.2%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학부모와 교사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
- 지도방식과 행동변화를 보면 ‘혼을 내며 야단친다’의 경우에는 ‘다시 문제행동을 안하거나 헛수가 줄었다’고 응답한 것이 모두 70.4%인데 비하여, ‘조용히 타이른다’의 경우에는 72.9%가 여기에 응답함으로써 청소년의 문제행동지도에 ‘조용히 타이른다’가 ‘혼을 내며 야단친다’보다 다소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혼을 내며 야단쳤을 경우에는 문제행동을 더 하게 된다고 응답한 것이 12.2%, 조용히 타이르렀을 경우에는 7.5%로 조용히 타이르는 것이 문제행동지도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무관심했을 경우에는 ‘문제행동을 더 하게 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18.9%로 나타나 어떤 형태로든 성인들이 문제행동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2) 문제행동을 금지시키는 이유

- 건강상 이유 때문에 금지해야 하는 문제행동은 흡연, 그리고 나쁜 습관이나 중독의 위험성의 이유 때문에 금지해야 하는 문제행동은 음주, 본드흡입, 노름 등으로 나타났다. 단 학업에 지장을 주는 문제행동은 이성교제에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청소년 개인과 관계된 유형이었다. 다음에 학교규칙과 사회규범에 위배되기 때문에 금지해야 하는 문제행동은 무단외박, 유흥업소 출입이었고,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이유로 금지되어야 하는

문제행동은 폭력 및 집단싸움이었다. 이들은 개인적인 문제라기 보다 반사회적인 요소가 많은 것들로 생각된다.

3) 현행 처벌규정에 대한 견해*

- 현재 각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처벌규정에 따른 각 행위별 징계량에 대한 반응을 분석한 결과, ‘약물복용(본드흡입) : 유기정학’(2.34), ‘고의적인 싸움이나 타인을 구타한 자 : 유기정학(2.69)’, ‘상습적인 흡연 및 음주행위 : 유기정학(2.77)’은 현행처벌수준이 다소 약하다고 응답한 반면, ‘외설물(음란서적)의 소지 및 회람 : 유기정학(3.24)’은 현행처벌수준이 다소 심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 외의 5가지 유형은 2.81~3.07로 적당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대부분의 행동유형에 있어서 청소년이 교사나 학부모보다 징계량이 심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집단별로 의견이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만 보면, ‘외설물(음란서적)의 소지 및 회람 : 유기정학’(청소년 ; 3.41, 학부모 ; 3.06, 교사 ; 3.25)과 ‘교사에게 모욕적이고 불손한 행동 : 무기정학’(청소년 ; 3.29, 학부모 ; 2.93, 교사 ; 2.93)은 청소년이 학부모와 교사에 비하여 현행 처벌수준이 심하다고 응답하였다. 학부모가 다른 집단에 비해서 현행 처벌수준이 특히 약하다고 응답한 유형이 있었는데 그것은 ‘학생출입금지업소 및 유사한 장소출입 : 유기정학’(청소년 ; 3.15, 학부모 ; 2.98, 교사 ; 3.14) 규정과 ‘남녀간의 풍기문란 : 무기정학’(청소년 ; 2.87, 학부모 ; 2.68, 교사 ; 2.88) 규정으로 나타났는데 이 유형에 더 무

*견해는 매우 약하다 1점, 약하다 2점, 적당하다 3점, 심하다 4점, 매우 심하다 5점으로 점수화하여 평균치를 내었다.

거운 징계를 기대하고 있었다.

- 배경변인별 분석결과를 보면 각 유형마다 다양한 결과가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학년별 변인에서는 대체로 학년이 높을수록 현행처벌 수준이 심하다는 쪽으로 반응하였다. 남녀별 변인을 보면 대부분은 여자가 남자보다 현행처벌 수준이 더 심하다고 응답하였다. 즉 거주지별로는 대부분 도시의 응답자가 농촌의 응답자보다 현행 처벌수준이 심하다고 응답하였다.

4) 현행 처벌방식의 문제점

- 현행 처벌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선도보다는 확실적인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34.8%)’, ‘처벌내용이나 과정에 있어서 행위자의 기본적인 욕구나 권리가 무시된다(26.6%)’, ‘교사의 주관적 판단에 지나치게 좌우된다(21.2%)’, ‘처벌기준이 사회나 시대변화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다(17.4%)’의 순으로 나타났다.
- 집단간에 다소 차이가 나타난 것은 ‘처벌내용이나 과정에 있어서 행위자의 기본적인 욕구나 권리가 무시된다’에서 청소년(29.9%)이 학부모(24.6%)와 교사(24.2%)보다 높은 응답을 보여 처벌을 받는 청소년들의 권리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교사의 주관적 판단에 지나치게 좌우된다’에도 청소년(23%)이 학부모(21.9%)와 교사(17.3%)에 비해 높은 응답을 보여 청소년과 교사의 입장 차이가 반영되었다. 그리고 ‘처벌기준이 사회나 시대변화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다’에서 교사(21.9%)가 청소년(13.6%)과 학부모(18.6%)에 비해 높은 응답을 보였다.
- 문제행동 유경험자(15.9%)는 ‘처벌기준이 사

회나 시대변화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다’에 무경험자(8.9%)에 비해 높은 반응을 보였고, ‘선도보다는 확실적인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에는 오히려 무경험자(38.2%)가 유경험자(29.9%)보다 높은 반응을 보였다.

5. 청소년 문제행동의 대책

- 문제행동에 대한 시급한 대책은 ‘화목한 가정 분위기 조성 및 가정교육기능의 강화’(36.7%), ‘학교생활지도 및 입시제도의 개선’(21.1%), ‘스포츠시설 등 청소년 놀이공간 확충’(17.4%), ‘정부기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정책 수립 및 추진’(11.3%), ‘퇴폐 향락문화 추방을 위한 의식개혁 및 계몽운동의 전개’(8.8%), ‘유해환경의 정화 및 유해업소의 단속강화’(4.8%)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요인, 학교요인이 중요한 대책으로 나타났다.
- 집단별로 응답에 큰 차이가 난 것은 ‘화목한 가정 분위기 조성 및 가정교육기능의 강화’에 교사(47.9%)와 학부모(40%)는 높은 응답을 보인 반면에 청소년(26.6%)은 낮은 응답을 보였으며, 오히려 청소년은 ‘학교생활지도 및 입시제도의 개선’에 28.6%가 응답하여 학부모(17.5%)와 교사(14.2%)보다 높은 응답을 보여 현 학교의 입시중심환경의 개선을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스포츠시설 등 청소년 놀이공간 확충’에 있어서도 학부모(14.8%)와 교사(10.2%)는 낮은 응답을 하였으나 청소년(24.2%)은 높은 응답을 보여 문제행동의 대책 우선 순위에 있어 청소년과 성인의 큰 의견차를 보이고 있었다.

III. 논 의

주요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다음의 6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그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가. 청소년들은 어떤 유형의 문제행동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 청소년 문제행동이란 무엇인가?

다. 청소년들은 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가?

라. 문제행동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마.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바라보는 집단간의 시각은 어떻게 다른가?

바. 청소년 문제행동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가?

1. 청소년들은 어떤 유형의 문제행동을 경험하고 있는가?

청소년들이 어떤 유형의 문제행동을 경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13가지 유형의 문제행동에 대한 경험유무에 관해 물어보았으며 남녀별, 지역별 등 변인에 따라 경험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행동유형은 전자오락실 출입, 음주, 이성교제 등으로 나타나는데 남자가 여자에 비해 노름이나 음란물 보기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 무례한 행동이나 과대치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의 청소년들이 농촌의 청소년보다 흡연, 전자오락실 출입, 음란물 보기 등에서 높은 경험율을 보여주는 반면 농촌 청소년들은 도시청소년들보다 무단 외박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로 비추어 볼 때 청소년들이 경험하게 되는 행동들은 사회문화적 특수성과 환경적 조건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보여짐으로 청소년 행동의 문제성을 찾거나 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확실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남녀별, 지역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2. 청소년 문제행동이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의 범위를 청소년기에 건전성장을 해칠 우려가 있고 학업이나 사회생활을 저해하여 교육적 입장에서 특히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리라고 판단되는 반사회적인 행동들을 중심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문제행동의 보다 심층적인 성격 규명을 위해서 문제행동과 범죄와의 관련성은 어떤 것인지, 상황적 조건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문제행동의 허용정도로 달라질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행동들이 더 허용되어질 수 있을지에 관해 초점을 맞추어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의 상황에 관한 본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응답자(청소년; 60.3%, 학부모; 72.7%, 교사; 60.2%)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그대로 두면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문제행동과 범죄와의 관계를 밀접하게 보고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은 그것을 일으키게 된 동기, 결과, 정도, 우연성 여부 등을 감안할 때 그 허용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또한 사회변화나 시대변화에 따라서도 행동유형에 따라서는 좀더 허용되어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성교제, 과대치장 등의 행동은 현재 심각성이 가장 낮은 행동으로 나타나며 또 앞으로 더욱 많이 허용되어질 수 있는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위의 결과들을 통해 볼 때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은 그대로 두면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지지만 그 정도나 성격상 유형에 따라서는 위험성이 적고 또 상황적, 시대적 조건에 따라 좀더 허용되어도 무방한 행동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문제행동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되지만 각 행동들은 그 심각성과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도되어야 할 것이며 모든 관련된 행동들을 일률적으로 문제시 하거나 금지해서는 도리어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청소년들은 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가?

청소년들이 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문제행동을 일으키게 되는 심리적 동기와 환경적 요인에 관해 물어보고 문제행동을 일으킨 후 어떻게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지 알아보았다.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심리적 동기와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심리적 동기로는 '일시적인 충동이나 호기심'(58.1%) 때문이거나 '마음의 불안이나 긴장해소'(23%)를 주요 원인으로 꼽음으로써 청소년들이 성인에 대한 반항심이나 모방심 보다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정서적 불안정과 입시위주교육 등으로부터 받는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주요동기로 나타났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기존의 연구들이 결혼과정의 문제등 가정적 요인을 강조해 왔음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퇴폐적인 성인문화'와 같은 사회환경적 요인(35.4%)과 '입시위주의 획일적이고 경쟁적인 학교교육'(30.8%)과 같은 학교교육적 요인들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더 중

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학교교육적 요인에 관해서는 청소년(36.5%)이 부모(25.8%)나 교사(28.8%)에 비해 월등히 많이 지적하고 있고 도시청소년(41.7%)이 농촌청소년(29.4%) 보다 인문계 청소년(44.8%)들이 실업계 청소년(21.2%) 보다 높은 응답율을 보여줌으로써 입시교육에 더욱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이 실제로 그 문제성을 더 심각히 느끼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또한 동료집단도 청소년 문제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리라 추측되어 지는데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남자; 20.3%, 여자; 9.3%), 학부모(남자; 19.2%, 여자; 12.7%), 교사(남자; 12.9%, 여자; 9.6%)의 세집단에 걸쳐 공통적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문제행동의 원인으로 '친구나 선배의 영향'을 많이 지적하고 있다. 반면에 여자는 남자에 비해 청소년(남자; 13.3%, 여자; 18.0%), 학부모(남자; 19.6%, 여자; 25.4%), 교사(남자; 17.6%, 여자; 28.5%)의 세집단 모두 가정환경의 영향을 문제행동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가 여자보다 동료집단의 영향을 더 심각히 인식하고 있음에 비해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정환경의 영향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을 하였을 때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방식에 있어서 '주위의 환경탓이지 내탓이 아니다'(34.4%)라고 하거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므로 어쩔 수 없다'(24.3%)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괜찮다'(22.3%)라고 하거나 '그 정도의 행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잘못이다'(19.0%)라고 대답한 경우보다 많은 것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행동이 나쁘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책임을 외부환경이나 타인에게 돌림으로써 책임회피내지는 책임부정을 하는 경향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친구들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남자청소년(24.0%)이 여자청소년(19.9%)보다 많이 지적함으로써 앞서 환경적 요인에서의 응답결과와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청소년(22.3%)이 학부모(18.3%)나 교사(14.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성세대보다 청소년들이 더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결과들이 시사해주는 바는 청소년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급한 과제는 퇴폐향락적인 성인문화와의 접촉기회를 감소시키고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를 개선시킴으로써 청소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며, 남자의 경우, 동료관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해야 하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책임감과 자율성을 키우는데 주력해야 하는 점 등이다.

4. 문제행동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문제행동의 유경험자와 무경험자의 반응 및 의식을 비교해 봄으로써 어떤 동기와 경로를 통해 문제행동을 하게 되는지에 관해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비행화의 전조를 가늠해 볼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기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련된 몇가지 문항에 대하여 문제행동의 유경험자와 무경험자의 반응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우선 유형별 문제행동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유경험자는 전 유형의 행동에 있어서 무경험자에 비해서 문제행동의 심각성을 낮게 인식함이 드러났다.

문제행동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들(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청소년)을 내버려 두면 대부분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에 무경험자는 71.7% 응답한데 비하여 유경험자는 47.8% 응답함으로써 문제행동이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을 유경험자들은 낮게 보고 있었다.

또한 문제행동을 합리화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정도의 행동을 금지시키는 것이 잘못이다'라는 응답에 유경험자(25.6%)는 무경험자(12.8%)보다 훨씬 많이 응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일련의 응답결과에 비추어 볼 때 문제행동의 유경험자들이 무경험자들보다 문제행동의 심각성을 덜 인식하고 있으며 문제행동에 대한 허용성을 더 많이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문제행동에 대한 공조성 혹은 공감성등으로 일컬어지기로 하는데, 즉 문제행동에 대해 독특한 허용성을 갖고 문제행동들을 용인하며 친화성을 가지고 직접 실행으로 옮길 가능성이 큰 성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에 관해서 유경험자 집단(19.9%)은 무경험자 집단(9.7%)에 비해 친구나 선배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행동을 합리화하는데 있어서도 '친구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므로 어쩔 수 없다'라는 응답에 유경험자(24.9%)는 무경험자(23.2%)보다 많이 응답함으로써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집단은 친구나 동료집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문제행동의 심각

성과 피해들을 제대로 알려주고 인식시키는 일이 문제행동의 예방을 위해 필요할 것이며 특히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집단에 있어서는 동료, 친구관계와 그 영향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함을 알 수 있다.

5. 청소년 문제행동을 바라보는 집단간의 시각은 어떻게 다른가?

청소년 문제행동을 바라보는 집단간 시각이 다를 수 있고 이러한 시각의 차이가 청소년을 일관성 있게 지도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의식을 갖고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집단간의 생각의 차이를 알아 보았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과 성인, 학부모와 교사, 여자와 남자 등의 집단사이에 문항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일관되고 뚜렷한 시각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우선 청소년집단과 성인집단이 다른 의견을 보여준 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다른 13가지의 모든 유형의 행동에 대해서 학부모집단이 청소년 집단보다 그 행동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상황별 5가지 유형의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부모나 교사들에 비해서 허용성을 더 많이 지적하고 있다. 사회변화에 따라 더 허용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도 9가지 행동 중 흡연과 약물복용의 경우만을 제외한 7가지 모든 행동유형에 대해 청소년들이 학부모나 교사보다 더 허용되어질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위의 결과들은 청소년들이 교사나 학부모에 비해 문제행동의 심각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으며 행동들이 더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로, 학부모집단과 교사집단의 의견을 비

교해 보면 13가지 유형의 전 행동에 걸쳐서 학부모가 교사보다 그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상황별 5가지 문제행동에 있어서도 4가지 유형의 행동에 대해 학부모집단은 교사집단에 금지의 응답을 더 많이 하였다.

또한 문제행동과 범죄와의 관련성에 관한 견해에 있어서 “이들(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청소년)을 내버려 두어도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청소년은 적을 것이다”라는 의견에 교사(34.4%)가 학부모(17.6%)보다 더 많이 응답한 반면, “이들을 내버려두면 대부분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라는 의견에 학부모(72.7%)가 교사(60.2%)보다 많이 응답하고 있다. 즉 학부모집단은 교사집단에 비해 문제행동의 심각성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반면 허용성은 낮게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문제행동이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여성집단과 남성집단의 시각차이를 비교해 보면 우선 13가지 유형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여자학부모가 남자학부모보다,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그 심각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즉 여성집단이 남성집단보다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5가지 유형의 상황별 문제행동에 대해서도 대체로 여성집단이 남성집단보다 행동의 허용성을 낮게 보고 있었다.

문제행동과 범죄와의 관련성에 관해서도 “내버려두면 대부분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응답한 경우 교사집단에서는 남자(61.2%), 여자(60.0%)가 비슷하게 응답하고 있지만 청소년집단과 학부모 집단에서는 각각 여자가 64.0%, 75.0%, 남성집단이 56.8%, 71.2% 응답함으로써 여자가 남자에 비해 문제행동이 범죄로

발전될 가능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사회변화에 따른 행동의 허용가능성의 여부를 물어본 문항에 있어서 9가지 모든 행동 유형에 대해 여자청소년들은 남자청소년들에 비해 이성교제의 경우를 제외한 8가지 행동유형에 대해서 역시 허용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었다. 따라서 여자집단은 남자집단에 비해 문제행동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범죄와의 관련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 반면, 문제행동에 대한 허용성을 더 낮게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각 집단간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관된 반응결과를 찾을 수 있는데 청소년 집단보다는 성인집단이, 교사집단보다는 학부모집단이, 남자집단보다는 여자집단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심각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행동의 허용가능성은 더 낮게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 문제행동이 범죄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사회나 시대변화에 따라 행동들이 더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보는 인식의 차이를 크게 엄격하고 보수적인 측면과 보다 허용적이고 개방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보면 성인집단, 학부모집단, 여성집단이 엄격하고 보수적인 데 비하여 각각 상대적으로 청소년집단, 교사집단, 남성집단은 허용적이고 개방적인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올바른 지도를 위해서는 각 집단간의 시각의 차이를 좁히고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대화기회의 확대 및 의견조정 노력의 더욱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일관성

있고 체계있는 청소년 지도를 위해 가정, 학교의 연계체계가 더욱 확립되어야 함을 위의 결과들이 시사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청소년 문제행동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가?

청소년이 문제행동을 일으켰을 때 성인들은 어떻게 지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평소에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지도방식은 무엇이며 또 실제로 어떻게 지도했는지에 관해 학부모, 교사들에게 물어보았고,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성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물어보았다. 또 성인의 지도방식이 실제 청소년 행동변화와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았으며 청소년의 행동을 금지할 때 어떤 이유로 금지하는지에 관해서도 물어보았다. 한편 학교의 제도적인 지도 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현행 처벌 규정상의 처벌정도와 그 처벌절차의 문제성에 관한 의견을 조사했으며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과 건전육성을 위한 대책에 관해 조사하였다.

청소년이 문제행동을 일으켰을 때 성인의 지도방식을 크게 야단치는 것, 타이르는 것, 무관심한 것 등 세 종류로 분류했을 때 우리나라 학부모나 교사는 지도방식에 대한 생각과 실제 지도방식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을 하였을 경우 야단치는 것(학부모; 29.5%, 교사; 24.3%)보다 조용히 타이르는 것(학부모; 62.6%, 교사; 72.3%)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야단친 경험(학부모; 25.4%, 교사; 27%)보다 조용히 타이르는 경험(학부모; 40.6%, 교사; 63%)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보는 성인의 지도방식은 어른의 생각과는 달리

자신의 문제행동에 대해서 부모나 교사가 조용히 타이르는 방식(8.4%)보다는 주로 혼내며 야단치는 방식(39%)을 취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지도하는 사람과 지도받는 청소년 간의 생각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지도의 의사, 목적이 청소년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지도방식의 부적절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또 성인의 지도방식과 청소년 행동변화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혼을 내며 야단친다'의 경우에는 '다시 문제행동을 안하거나 헛수가 줄었다'고 응답한 것이 모두 70.4%인데 비하여 '조용히 타이른다'의 경우에는 72.9%가 응답함으로써 청소년의 문제행동 지도에 '조용히 타이른다'가 '혼을 내며 야단친다'보다 다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관심했을 경우는 '문제행동을 더 하게 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18.9%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성인의 지도방식은 그 의도, 목적이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야 할 것이며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을 저질렀을 경우 성인들이 무관심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을 것이며, 지도방식으로는 야단치거나 혼내는 것보다는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타이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행동을 못하게 하거나 금지하기 위해서는 그 타당한 이유를 밝힘으로써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부모나 교사들은 흡연, 음주, 본드흡입 및 약물복용, 노름 등은 청소년들 개인의 건강이나 나쁜습관의 형성, 중독의 위험성 등을 우려하여 금지하고 있으며, 무단가출 및 외박·유흥업소 출입,

그리고 폭력 및 집단싸움 등은 사회규범이나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하여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 행동의 허용가능성 여부도 위에서 제시되는 이유나 조건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가에 따라 확대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제도적, 법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 중의 대표적인 것이 현행 학교의 처벌규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규정이 처벌정도에 있어서 타당하지 못하고 그 처벌절차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못할 때 청소년들의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지 못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각 문제행동 유형에 따른 징계량에 관해서는 대체로 적당하다고 보거나 다소 약하거나 다소 심하다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그 처벌 절차에 있어서 선도보다는 확실적인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점(34.8%), 처벌내용이나 과정에 있어서 행위자의 기본적 욕구나 권리가 무시되는 점(26.6%)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행동에 관한 기준을 세우고 문제행동의 올바른 지도를 위해서는 그 금지하는 이유를 명확히 가르쳐 주어야 할 뿐 아니라 징계량, 처벌절차 등에 있어서도 일관성, 타당성, 합리성 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줄이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지적한 것은 '화목한 가정분위기 조성 및 가정교육기능의 강화'(36.7%), '학교생활 지도 및 입시제도 개선'(21.1%), '스포츠 시설 등 청소년 놀이공간의 확충'(17.4%) 등인데, 특히 두번째와 세번째 사항은 성인집단에 비해 청소년들이

더욱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IV. 제 언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청소년 문제행동의 올바른 지도를 위해 고려해야 할 몇가지 사항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문제행동은 그 유형에 따라서 심각성과 유해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심각한 행동과 덜 심각한 행동을 구별하여 지도하여야 하며, 행동을 일으킨 상황적 제요인과 사회적 변화를 감안하여 그 허용정도를 융통성 있게 가늠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 문제행동의 지도는 각 대상에 따라 보다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자집단과 남자집단의 행동유형이 다름에 따라 그 지도방식도 달라져야 할 것이며 도시청소년과 농촌청소년의 인식과 행동유형이 다름에 따라 그 환경적 배려와 유해적 요소의 제거 등 각 대상에 따른 지도의 개별화와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결과만을 중심으로 행동의 문제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행동을 일으키게 된 동기,

정도 등 상황적인 제요인들과 시대, 사회적 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등을 고려하여 다각적으로 그 문제성이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을 위해서 퇴폐 향락적인 유해환경의 정화와 입시위주 교육 풍토의 개선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비행의 전조가 될 수 있는 행동적 특성을 조기에 발견하여 진단, 파악함으로써 범죄로의 발전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을 쉽게 허용하는 공조적 성향을 억제하기 위해 문제행동의 심각성과 폐해, 유해성등을 적절히 인식시켜야 할 것이며 특히 비행화의 우려가 보이는 집단에 대해서는 동료집단의 영향을 주의깊게 고려하여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청소년 문제행동은 일관성있는 기준과 절차를 가지고 지도해야 할 것이다. 행동을 금지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하며 가정과 학교에서의 지도, 가정 내에서도 부와 모의 지도방식이 크게 차이나지 않아야 하며, 학교의 처벌규정이 각 학교에 걸쳐 일관성 있고 그 징계량이 타당하여야 하며 또 그 처벌절차가 공정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광수(1990), “소외와 문제행동의 관계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종서의(1987), 교육학 개론. 서울:교육과학사.
 대한교육연합회(1986), 청소년 행동 성향에 관한 연구.
 박원무(1972), “중학교 징벌규정에 관한 일연

구—서울 시내 중학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청소년문제연구소(1988),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대한 일반적 고찰.
 유혜경(1986),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길홍외(1983), “근로청소년의 산업재해와 음주양상과의 상호관계에 관한 산업정신의학적 연구”, 한국의 과학 15(1).
- 이성진, 박성수(1984). 학생비행 예방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 이승연(1987), “서울 시내 남자고등학생들의 흡연형태 및 지식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춘재외(1988), 청년 심리학, 서울:중앙적성출판사.
- 장병림(1985), 청년 심리학, 서울:법문사.
- 정원식(1974), 교육 환경론, 서울:교육과학사.
- 체육부(1989), 청소년 백서.
- 표갑수(1986), 청소년 비행 원인 이론, 서울: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한국교육개발원(1989), 학생비행의 제이론 비판 분석.
- 한국청소년연구원(1990), 한국청소년연구 제1권 제1호.
- 한준상(1989), 청소년문제와 학교교육, 서울:연세대학교 출판부.
- 형사정책연구원(1989),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 홍준기(1976), “고등학교 학생의 일탈행위 분석—학생처벌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ndura, A. & Walters, H.W.(1963), *Social Learning and Personality Development*.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New York.
- Baumrind, D.(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ent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
- Becker, H.S.(1963), *Outsider:Studies in the Sociology of Deviance*. Free Press, N.Y.
- Clinard, M.B.(1963), *Sociology of Deviant Behavior*, Holt Rinehart and Winston, New York.
- Cohen, A.K.(1959), “The Study of Social Disorganization and Deviant Behavior”. In R. K.Merton, L.Broom, & L.S.Cottrell, Jr(Eds.), *Sociology Today : Problems and Prospects*, Basic Books, New York.
- Colman, J.C.(1974),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Routledge and Kegan Paul, Boston and London.
- Colman, J.S. & Husen, T.(1985), *Becoming Adult In a Changing Society*, OCDE, Paris.
- Docking, J.(1989), “Elton’s Four Questions : Some General Considerations.” In N. Jones (Ed.), *School Management and Pupil Behavior*, The Falmer Press.
- Erikson, K.T.(1964), “Notes on the Sociology of Deviance.” In H.S.Becker (Ed.), *The Other Side : Perspectives on Deviance*. Free Press, New York.
- Evans, W.H., Evans, S.S. & Schmid, R.E. (1989), *Behavior and Instructional Management-An Ecological Approach*. Allyn and Bacon, Boston.
- Eysenck, H.J.(1967), *The Biological Basis of Personality*. CharlesC.Thomas, Springfield, Illinois.
- _____ (1977), *Crime and Personality*. Routledge and Kegan Paul, London.

- Healy, W & Bronner, A.(1963), *New Light on Delinquency and Its Treatment*.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Connecticut.
- Hirschi, T.(1969), *Causes of Delinquency*. Univ. of California Press, Berkley, . Cal.
- Jessor, R., Graves, T.D., Hanson, R.C., & Jessor, S.L. (1968), *Society, Personality and Deviant Behavior*,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New York.
- McManus, M.(1989), *Troublesome Behaviour in the Classroom*, Routledge Nichols Publishing Company, New York.
- Merton. R.K.(1961), "Social Problems and Sociological Theory." In R.K.Merton & R.A.Nisbet(Eds.), *Contemporary Social Problems*, Harcourt, Brace & World, New York.
- Schaefer, E.S.(1959), "A Circumf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 Sheldon & Glueck, E.(1967), *Venture in Criminology*.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 Sherif, M.(1961), "Conformity-Deviation, Norms and Group Relations." In I.A. Berg & B.M.Bass(Eds), *Conformity and Deviation*, Harper & Row, New York.
- Sherif, M. & Sherif, C.W.(1964), *Reference Groups : Exploration into Conformity and Deviation of Adolescents*. Harper & Row, New York.
- Sutherland, E.H. & Cressey, D.R.(1975), "The Theory of Differential Association." In Traub & Little(eds.), *Theories of Deviance*, Itasca, II: Peacock Pub.
- Symonds, F.M.(1939), *The Psychology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Appleton - Century, N.Y.
- Trojanowicz, R.C.(1983), *Juvenile Delinquency*,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J.
- Yankelovich, D.(1955), *Principles of Criminology*. Lippincott, New York.
- 文部省(1977), 問題行動をもつ生徒の指導.
- 笠間達男外(1988), 生徒指導 基本事例集, 東京: 學事出版.
- 總理府 青少年 對策本部(1982), 不良行爲少年の 實態と 對策に關する調査(青少年問題研究 調査報告書)
- _____ (1990), 青少年問題の 現状と 對策 (1989年版 青少年 白書).